



14년
"전북 교육의 동반자"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음 11월 22일) 제34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24 갑진년 시무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청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기원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특별한 100년으로 향하는 첫 해”

전북도는 2일, 도청 공연장에서 갑진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해를 맞아, 첫 공식 업무는 도지사와 간부공무원들이 호국영령을 추도하기 위해 군경묘지 참배로 시작했으며 시무식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의 비전을 담은 영상 시청과 새해 청원 희망과 각오 낭독,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특

전북도, 2024년 시무식... 특별자치도 성공 기원

김관영 지사 “백년대계 위해 도전경성 정신 이어가자”

도청 직원들 “전북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별한 100년으로 향하는 첫해,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생 살리기 등 더 나은 도민의 삶실시를 위해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시무식 본 행사에 이어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전북특별자치도’란 주제로 청원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도전경성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시무식에 참석한 전북도청 직원들은 “올해 우리 전북도가 새롭게 특별자치도로 거듭나는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겠다”며 “전북이 더욱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은 오는 1월 18일 11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재훈기자

전주사랑상품권, 올해부터 완주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완주사랑상품권과 상호결제 개시... 올 발행 규모 2400억원 시, 전주사랑콜 · 전주사랑상품권 플랫폼 간 결제 연계키로 신규 사용 원할 경우 앱 내려받아 신규 가입 후 카드 신청

2024년 갑진년 새해부터는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완주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새해 첫날부터 전주시 전주사랑상품권과 완주군 완주사랑상품권 간 상호결제 서비스가 개시됐기 때문이다.

시는 2일 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전주사랑상품권(폐지카드) 발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2400억원으로, 월 발행한도는 210억원이다.

시는 명절 기간(설)에는 30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매월 발행 규모가 소진 시에는 상품권 발행이 조기 종료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연간 200만 원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전주·완주사랑상품권 상호 결제 서비스에 이어 이날 중순에는 전주사랑상품권 플랫폼(앱)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전주시 택시공공앱인 ‘전주사랑콜’이 출시됨에 따라 전주사랑콜과 전주

사랑상품권 플랫폼 간 결제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내 모바일 간편결제인 QR결제 기능도 탑재된다.

모바일 간편결제가 도입되면, 사용자는 패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앱에서 QR결제 버튼을 누른 뒤 가맹점 내 비치된 전주사랑상품권-카카오페이 QR키트를 스캔 후 금액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시는 플랫폼 확장과 관련해 지난 9월 모바일 플랫폼 개편 작업을 통해 전주시 공공플랫폼인 전주푸드와 상품권 플랫폼 간 결제 연계를 완료했으며, 플랫폼 내 아이폰 재배치 등 추가 작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도모해왔다.

한편, 전주사랑상품권 신규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전주사랑상품권 앱을 내려받아 신규 가입 후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신청하거나, 전주·완주지역 거점 전북은행에 방문하면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완주사랑상품권 사용을 원하는 전주 시민들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검색하고 설치한 후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신청하거나, 완주군 내 판매대행점을 방문하면 신규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새 출발”

도의회, 신년 시무식
“도민 위한 의정 다짐”

전북도의회는 2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국주영은 의장과 김양원 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새해 업무 시작을 위한 시무식을 가졌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지난해에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이러한 성과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직원들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



2일 전북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국주영은 의장과 김양원 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새해 업무 시작을 위한 시무식을 가졌다. 사진은 시무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활풍을 전개해야 한다”며 “의원들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멋지게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시무식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멋지게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재훈기자

올해 전북체육 키워드는 ‘변화’

전북체육회, 시무식서 체육 위상 한 단계 강화 다짐
“특별자치도체육회로 도약 한 해 되도록 힘 모으자”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2024년 키워드를 ‘변화’로 설정, 올 끝은 체육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전북체육회는 2일 시무식을 열고 ‘변화’를 강조하며 전북 체육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기로 다짐했다.

특히 128년 동안 사용해 온 전라북도 명칭이 오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체육회도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로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체육회의 존재 이유는 전북 체육 발전과 체육인

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며 “민선 체육회로 출범한 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더욱더 변화와 배려 속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로 태어나는만큼 초석을 잘 쌓아야 한다”라며 “겸손과 배려 속 진정 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전북 체육이 한국 체육의 중심이 되도록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뉴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라북도체육회가 2일 시무식을 연 가운데 정강선 회장이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당신의 기부금은...

- 야생벌 봉봉이를 지원합니다!**
 - 야생벌 Bee hotel설치
 - 꽃씨배포사업
 - 환경캠페인 및 교육
 - 동약벌 수거사업
- 어르신들의 발라를 돕습니다.**
 - 행복을 전하는 이동세탁차
 - “보송이”를 운영
-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지역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첫걸음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혜택과 담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자혜택|

기부금액	세액공제+담례품
100,000원	130,000원
1,000,000원	548,500원
5,000,000원	2,408,500원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기부금 대면접수창구

※ 문의처 : 063)580-4938

부안군

봉봉이
야생벌
친구